

- 주요 뉴스: 미국 '22년 12월 소비자물가 발표 예정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 증가 여부에 관심
 - 연준 주요 인사, 2월 0.25%p 금리인상 가능성 제시. 인플레이션 제어도 강조
 -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 유로존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은 수준 지속될 전망
 - 중국 인민은행, 경기부양책 효과로 인한 성장률의 장기 평균 회귀를 예상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연준의 통화긴축 완화 기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1.5%], 달러화 강세[+0.3%], 금리 하락[-32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연준의 긴축기조 전환 가능성 등이 원인
 유로 Stoxx600 지수는 인플레이션 우려 감소 등으로 4.6%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등이 영향. 주말 앞두고 상승폭 축소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6%, 0.7%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고물가 장기화 전망 약화 등이 반영
 독일은 역내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 등으로 36bp 하락
- ※ 원/달러 환율(주간) 0.3% 상승, 한국 CDS 하락

주요지표					주요지표				
		1/6일	12/30일	전주말대비			1/6일	12/30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3,895.1	3,839.5	1.45%	국채금리 10y	미국	3.56%	3.87%	-32bp
	유럽	444.42	424.89	4.60%		독일	2.21%	2.57%	-36bp
	중국	3,157.6	3,089.3	2.21%		영국	3.47%	3.67%	-20bp
	일본	25,974	26,095	-0.46%	CDS 5y	한국	49bp	52bp	-3bp
	한국	2,290.0	휴장	2.40%		중국	61bp	66bp	-5bp
	달러지수	103.88	103.52	0.34%	위험지표	EMBI+	390	375	15bp
유로화	1.0644	1.0705	-0.57%	VIX		21.13	21.67	-2.49%	
환율	엔화	132.08	131.12	-0.73%		WTI유	73.77	80.26	-8.09%
	위안화	6.8280	6.8986	1.03%	원자재	구리	391.1	381.1	2.64%
	원화	1,268.6	휴장	-0.32%		금	1,865.7	1,824.0	2.28%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12/29일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22년 12월 소비자물가 발표 예정,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 증가 여부에 관심

- 1/12일 '22년 12월 소비자물가(CPI) 발표가 예정. '22년 12월 연간 및 일간 CPI 상승률의 시장 컨센서스는 각각 6.3%, -0.2%~0.0%로 전월(7.1%, 0.1%) 대비 하락 예상. 근원 CPI의 연간 및 일간 상승률은 5.6%, 0.2%~0.3%로 전월(6.0%, 0.2%) 대비 하락 및 보합 혹은 소폭 상승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
-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지속과 작년보다 비둘기파적(dovish) 인사들이 늘어난 '23년 통화위원 구성을 고려하여 이번 FOMC에서 0.25%의 금리인상을 전망. 다만 0.50%p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존재
- 최근 CPI 상승세의 둔화는 연준의 금리인상 보다는 중국 경기부진에 따른 주요 원자재 가격의 하락, 공급차질 개선 등에 기인. 다만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연준의 통화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전망. 향후 2회의 FOMC에서 각각 0.25%의 금리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Bloomberg Economics)
- 한편 CME FedWatch Tool 역시 연방기금금리 목표(현재 4.25~4.50%)가 2, 3월 FOMC에서 각각 0.25%p 인상되어 정점(4.75%~5.00%)을 기록한 이후, 12월에는 0.25%p 인하가 이루어져 소폭 낮아질(4.50%~4.75%) 것으로 관측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연준 주요 인사, 2월 0.25%p 금리인상 가능성 제시. 인플레이션 제어도 강조

- 애틀랜타 연은의 보스틱 총재는 '22년 12월 고용보고서 결과가 점진적 경제성장 둔화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 이를 고려할 때 다음 FOMC에서 0.25%p 금리인상이 적절하다고 첨언. 시카고 연은의 에반스 총재도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연준이 2월에 0.25%p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라고 언급
- 리치몬드 연은의 바킨 총재는 이전 대비 소폭의 금리인상이 경제 충격 영향을 제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진단. 다만 연준은 인플레이션 수준을 떨어뜨리는데 단호한 움직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
- 연준의 쿡 이사는 임금상승 둔화, 임대료 상승률 하락, 주요 원자재의 공급 부족 개선 등 다양한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 신호가 존재한다고 발언

■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 유로존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은 수준 지속될 전망

- 레인 이코노미스트는 에너지 가격 상승세 둔화가 발생한다고 해도 향후 2~3년은 임금상승 등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 아울러 미래의 에너지 가격 관련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진단

■ 유로존 '22년 11월 소매판매, 전월비 증가. 향후 전망도 이전보다 개선될 가능성

- '22년 11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8% 늘어나 10월(-1.5%)의 감소세를 탈피. 낮은 수준의 에너지 가격이 유지되고 가계 실질소득의 감소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면 향후 소매판매도 당초 우려보다는 긍정적 결과 나타낼 것으로 기대

■ 중국 인민은행, 경기부양책 효과로 인한 성장률의 장기 평균 회귀를 예상

- 인민은행 귀수칭 부총재는 당국의 금융지원 등으로 가계 및 기업이 제로 코로나 정책 중단의 충격에서 회복될 것으로 기대. 특히 가계소득이 증가하면서 주택 및 자동차 구매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
- 한편 당국에서는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 일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 확대 등을 허용하여 좀 더 큰 폭의 레버리지 사용이 가능한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

■ FAO(유엔식량농업기구), '22년 전세계 식품가격은 사상 최고. 라우 전쟁 등에 기인

- 작년 전세계 식품가격지수는 143.7을 나타내 '21년 대비 14.3% 상승하며 집계 시작된 1990년 이후 최고치. 다만 작년 4월부터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 등으로 9개월 연속 하락세 유지

■ IMF, 인도 경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 서비스 수출 호조 유지할 필요

- 앙투아네트 사예 부총재는 인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평가. 다만 강력한 서비스 수출이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고물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9 현지시각 기준)

- 미국 '22년 11월 소비자신용잔액, 유로존 1월 섀틱스 소비자신뢰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세계경제 둔화, 재앙은 아닐 가능성. 주요 악재의 감소 예상 - Financial Times

(Downbeat Global Economy Doesn't Mean Disaster)

- 새해를 맞이하면서 각국은 경기침체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 침체의 우려는 점진적으로 확대. 금년 부진한 세계경제 성장을 예상할 수 있는 많은 이유가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비관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
-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핵심 요인은 중국. 다만 중국의 경우 경제활동 재개 초기에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연말로 갈수록 성장세가 강화될 전망. 또한 작년 한해 상승세를 이어 왔던 금리도 금년에는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전체적으로 세계경제를 침체로 이끌 주요 요인들은 점차 사라지며 '24년은 더 개선될 것으로 예측. 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여러 장애물에는 유의할 필요

■ 미국의 상반된 경제지표, 시장과 당국의 시각 차이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 - WSJ

(The Split-Screen U.S. Economy)

- 미국의 '22년 12월 고용보고서는 신규고용 증가 및 실업률 감소 등으로 향후 전망 관련 긍정적 신호 발신. 그러나 동월 ISM 서비스 PMI는 49.6을 나타내 전월(56.5) 및 예상치(55.0)를 크게 하회. 신규수주 또한 '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전월비 감소
- 투자자들은 ISM 서비스 PMI가 향후 경기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기에 미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이에 따른 금리인상 기조 종단을 예상. 그러나 연준은 강력한 노동시장을 근거로 고물가 통제 노력을 이어갈 가능성

■ 유럽 에너지 위기, 따뜻한 겨울 기온은 긍정적. 위험요인도 여전히 존재 - 블룸버그

(European gas: weathering the coming storm)

- 러시아의 공급 축소로 에너지 위기를 우려했던 유럽은 예상보다 따뜻한 겨울 기온, 가스가격 하락 등으로 당초 우려보다는 나은 상황. 최근의 가스 저장량도 저장 가능분의 83.5% 수준으로 작년에 비해 여유가 있는 편
- 다만 여전히 경계심이 필요. 향후 12개월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기온도 정상 수준을 회복하면 가스 소비는 증가할 수 있기 때문.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가스 수입을 놓고 경쟁할 가능성도 존재
- 이에 따라 유럽은 에너지 관련 구조개혁을 늦추지 말아야 하며,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태양력·풍력 시설 확대도 중요. 이 외에는 다른 대안이 부재

■ EU, 공동 통화정책의 장점 등으로 지속 확대 가능성 - Financial Times

(Monetary independence is overrated, and the euro is riding high)

- 과거 유럽 부채위기 이후 일각에서는 EU의 쇠퇴 예견이 증가했으나 금년 초 크로아티아의 가입 등으로 EU의 성장 기대가 증가. 이는 EU의 공동 통화정책이 제공하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
- EU 회원국 슬로바키아의 경우, 에너지 위기에 따른 고물가에도 금리(2.5%)는 인접국 체코(비회원국) 등에 비해 3배 이상 낮은 수준. 또한 EU는 규모의 경제 등으로 미국의 긴축정책에 따른 금리인상 압박이 상대적으로 제한적. 이에 ECB는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에 비해 정치적 영향을 적게 받아 독립성 확보에도 유리

■ 세계 경제, 글로벌 금리인상 및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으로 불확실성 증대 - 블룸버그

(Economists Fret Over Perils Ahead for Global Grow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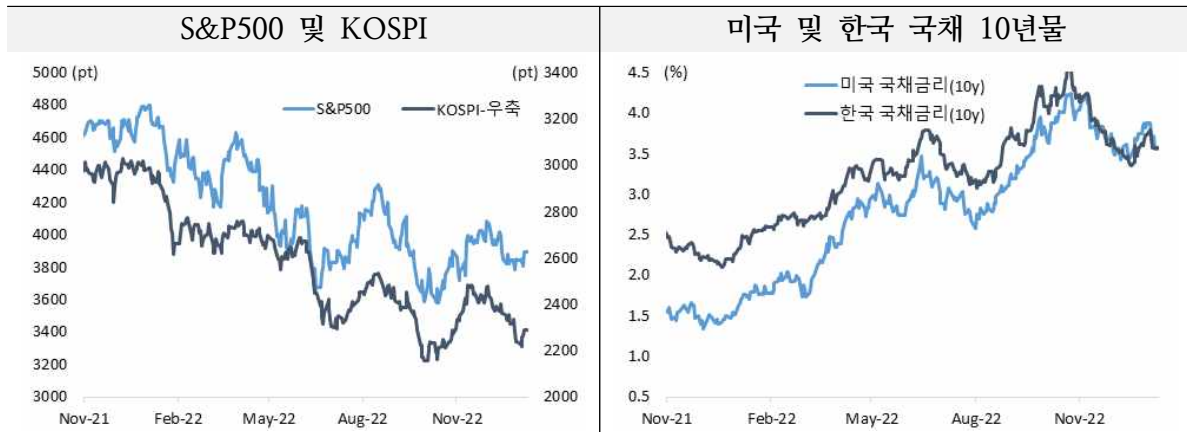
■ 미국 주요 기업의 '22년 4/4분기 이익, 비용증가 등으로 전기비 부진 예상 - WSJ

(Wall Street Sets Low Bar for Corporate Earnings Sea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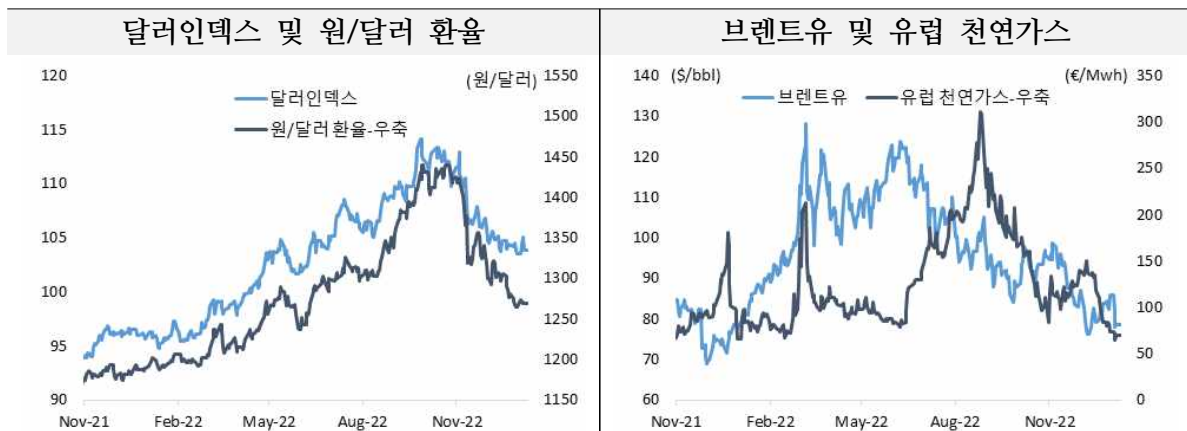
■ 미국 경제, 노동시장 안정에 따른 임금상승 둔화 등으로 경기연착륙 가능 - 블룸버그

(Goldilocks Makes an Appearance in the Jobs Market)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